



시공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을 최우선의 경영전략으로 삼아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종학

희 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설비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 여러분께도 보람과 기쁨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의 침체와 8. 31. 부동산정책 이후의 주택건설경기 위축, 그리고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 변화로, 건설업계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우리 설비건설업계는 점점 더 심해지는 하도급공사금액의 추락으로 원가 이하의 저가수주를 강요받고 또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회원사 사장님들께서 과당경쟁에 의한 저가수주를 자제하고, 품질향상과 내실경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지난 한해 동안 회원사의 업역 확대와 경영상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으로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금액의 상향조정,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물가연동제 조정기준 변경 등 여러 부문에서 제도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일반건설업체에서는 4대 사회보험 비용을 극히 형식적으로 반영만 하고 있을 뿐이고, 물가연동제나 설계변경시에도 타협을 하려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의와 타협을 해서는 안되고,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찾아 공사원가 상승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 옥내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하여 여러 발주기관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저와 임직원 그리고 전국 시·도회장들께서 분리발주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업역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인 일반·전문건설업 간의 겸업제한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및 전문건설업자 간의 공동도급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원도급공사에서 시공참여자를 사용한 직영시공을 막을 수 있도록 하도급공사에만 시공참여자제도를 허용토록 법제화하는 등, 우리 업계에 유리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자 산재발생시 산재 은폐를 강요하도록 하는 PQ신인도 제도의 개선과 불법하도급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건설하도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자재가격과 노임단가 현실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업계의 숙원사업인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르는 주택경기 위축으로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방혁신 및 기업도시건설과 새로운 수도권 신도시건설 등 많은 부분에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며, 건설산업의 중요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과거의 의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실경영을 통한 시공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을 최우선의 경영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께서는 상호 신뢰하고 사랑하는 풍토 속에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병술년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정책역량 집중



건설교통부 장관 추병직

친애하는 건설교통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乙酉年이 가고 丙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엇그제 같은 데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통합을 이루고 일류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 해에는 지역간·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으로서의 도약 등을 전략목표로 삼고 이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였습니다. 2004년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추진조직을 갖추었으며, 2005년에는 정책목표를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데 역량을 집중하여 그 결과 가시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건설교통 가족 여러분!

우리 건설교통부는 참여정부의 한가운데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이끌고 온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2003년 10월에 있었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과 작년에 제기되었던 헌법소원 등의 위기상황을 행정중심도시 추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전환시킴으로써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도 다들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끈질긴 설득과 대화를 통하여 이해관계자를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 냈으며 지금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업도시도 당초 목표한대로 전국 6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시장 안정입니다. 수많은 공문화 과정과 여론수렴을 거쳐 지난 8.31에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불안하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들의 희망과 염원을 담아 마련한 대책이니 만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건설교통부가 한 일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화물연대 집단 행동 움직임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SOC 확충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강

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 건설교통 가족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라고 생각합니다.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본체도로 진입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시책들과 SOC 건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용기와 각오를 다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국토를 형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수도권 지역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 해서는 안됩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합니다. 8.31대책에 따른 후속제도를 착실히 시행하고, 다가구 매입임대나 국민임대주택 건설,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한 차원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자금 지원 확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주택가격공시제도 등도 착실히 시행하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교통 물류 네트워크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물류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물류업인증제 시행 등 선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시행과 함께 RFID나 ITS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물류 정보화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문별 투자계획을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해 나가고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성과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건설도 기울여 해서는 안됩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을 가시화하고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은 2010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중점 관리해 나갑니다. 인천공항 2단계사업을 본격 추진해 가면서 고속도로, 철도 등 간선교통망과 물류지원시설 확충, 하천개수사업 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여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땅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철과 광역철도를 지속적으로 건설하는 한편,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하여 함께 사는 사회의 기초를 닦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 건설목, 지하철 승강장과 같은 사고 취약지역을 중점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고속도로에 연기금을 투입하고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고속도로사업도 초기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실적공사비를 확대 적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작년에도 IMF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었던 해외건설 수주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 국토를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환경관련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화 기술을 민원처리 등에 적용하고 정책자료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홍보력도 경주해 나갑시다.

또한 건설기술력 제고를 위해 R&D를 확대해 나가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화 진전에 대비한 국제적 업무도 적극 개발해 나갑시다. 또한, 부패 없는 깨끗한 건교부로 만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갑시다. 이러한 혁신이 없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에서 발간한 혁신독후감 책제목이 <1분만에 변신하고 평생 변화하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노력합시다.

건설교통가족 여러분!

또 한번의 변화와 도약의 한 해가 될 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겨 달성하고, 전국이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일류국토를 가꾸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직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 직원의 정예화, 전문화를 위한 조직체제 개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찬재

대한설비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인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조합원 및 설비건설업 가족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건설경기 회복 지연과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설비건설 업계는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시는 조합원사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예견되고, 건설경기 역시 되살아나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속에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조합원 여러분!

저희 설비공제조합 임직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조합원사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조직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 직원의 정예화, 전문화를 위해 조직 체제를 개편하였고, 서비스 교육을 통한 마인드 향상 그리고 실질적인 경영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많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지금 창립대비자본금 130%, 조합원 수 70%가 증가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병술년 새해에는 보증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조합원사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설비공제조합 임직원은 결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6년에는 「조합원과 하나되는 조합」을 목표로, 보증수수료 요율 인하, 전면 신용거래 정착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의 파트너로서 입지를 넓혀갈 것이고, 원스톱 서비스확대와 IT서비스 혁신, 신용평가 모델 개선 등 더욱 조합원사에 다가가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전이 곧 설비공제조합의 발전이고, 설비공제조합 임직원의 중단 없는 개선 노력이 조합원사의 발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설비공제조합 임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여, 조합원사에 다가가는 설비공제조합, 조합원과 하나되는 설비공제조합을 이룩할 것입니다.

이는 조합원사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로 더욱 조기정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및 설비건설업 가족여러분!

새해 병술년에도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며, 무엇보다 더욱 건강한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